

# 이현욱 “애가 저번의 개였어? 그말이 참 듣기 좋아요”



“늘 신선하게 다가가고 싶어요. ‘애가 저번의 개였어?’ 그말이 참 듣기 좋아요. 작품을 봤을 때 같은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새롭게 말이지.”  
tvN 주말극 ‘마인’의 최대 수확은 ‘이현욱의 발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선함과 악함을 동시에 오는 ‘빌런’으로 등장, 안방극장에 제대로 눈도장을 찍었다. ‘마인’에서 재벌 2세 역을 맡은 그는 잘생긴 외모와 함께 서늘한 분위기를 전하며 반전의 모습을 강렬하게 선사했다. 최근 서울 중구 뉴시스 사옥에서

진행한 ‘마인’ 종영 인터뷰에서 이현욱은 “많은 관심을 받아서 감사한 마음”이라고 먼저 인사했다. 6월27일 인기리에 종영한 ‘마인’은 재벌가를 중심으로 다양한 인간군상을 담아냈다. 이현욱은 효원그룹의 둘째 아들이자 톱배우였던 ‘서희수’(이보영)의 남편 ‘한지용’을 연기했다. ‘서희수’에게 세상 부드럽고 다정한 남편이었지만, 극이 전개되면서 거짓말을 해온 그의 실체가 드러났다. 혼외자로 후계자의 자리를 노려온 그는 자신의 아들의 친모를 튜터

로 몰래 들이고, 불법 격투를 즐기는 등 결핍되고 악랄한 기질을 보여 충격을 선사했다. 그는 “사실 빌런 연기는 걱정 없었는데, 결혼하고 아이가 있는 인물이라는 점이 큰 과제였다. 그 정서를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이질감이 있을지 봐 걱정됐다”고 말했다. 그는 “‘한지용’이 하는 행동은 이 사람 입장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다”면서 그래서 “특별히 악한 표정을 짓기보다 당연한 표정으로 표현되어 시청자들이 좀 더 자연스럽게

tvN 마인, 이보영 ‘악마 남편’ 한지용

롤모델 이병헌 “희극·정극 오가 존경”

차기작 ‘블랙의 신부’ 김희선과 호흡

게 이 인물의 뻔뻔함과 이중적인 모습을 느꼈을 것 같았다”고 말했다. “저 나름대로 시도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많이 해서 후회는 없다. (내 것이 흔들릴 때)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여주려 했다. 극단적인 감정 변화나 집착을 보일 때, 눈빛으로 표현하고 싶었다.” ‘마인’은 소유의 집착으로 악의 끝을 달리던 이현욱(한지용)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가 극의 고조를 끌어올렸다. ‘한지용’이 ‘서희수’와 다툼을 벌이다가 2층 난간에서 떨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쳐 사망에 이르면 서다. 예상치 못한 죽음으로 최종회까지 베일에 가려져 있던 범인의 주검(박성연)로 드러났지만 그 죽음으로 효원의 물고 물리는 인간 군상들의 불안감이 끝까지 극을 이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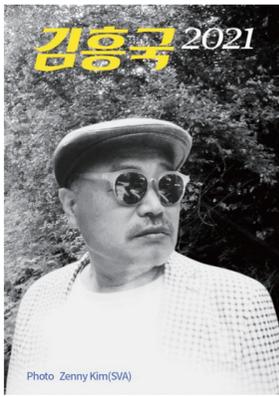
이보영, 김서형, 박혁권 등 내로라하는 선배 배우들과 호흡을 맞춘 소감도 밝혔다. “다들 베테랑이셔서 배울 게 많았다. 저만 잘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면서 “에너지가 받아서 너무 좋았다”고 감사함을 표했다. 드라마 ‘타인은 지옥이다’로 주연을 맡아 얼굴을 알린 이현욱은 ‘모범형사’, 영화 ‘#살아있다’ 등에서도 짧지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강한 느낌의 캐릭터 제이가 꺼려진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무기라고 자신했다. 그는 “사람들이 저를 차갑게 보거나 선입견을 갖고 보는 게 싫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제 무기인 걸 몰랐다면 연기할 기회가 없지 않았을까 싶다. 사실 자신도 있다”면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착한 캐릭터도 다 다르잖아요. 악역도 캐릭터마다 면면이 다르죠. 서사나 성격이 겹치지 않고 연기하면서 찾을 수 있는 재미와 흥미가 있다면, 악역에 대해 부정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불륜이나 반윤리적인 역할을 연속으로는 못하겠어요. 스리아웃은 아니잖아요.(웃음)”

“작한 캐릭터도 다 다르잖아요. 악역도 캐릭터마다 면면이 다르죠. 서사나 성격이 겹치지 않고 연기하면서 찾을 수 있는 재미와 흥미가 있다면, 악역에 대해 부정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불륜이나 반윤리적인 역할을 연속으로는 못하겠어요. 스리아웃은 아니잖아요.(웃음)”

것은 연극이었다. “한때 기대에 부응하려고 등 떠밀려 하기도 했고 즐기지 못하면서 재미없게 연기했었어요. 그때 연기를 그만두려고 했죠. 그런데 연극을 하면서 재미를 찾았어요. 연기적인 성취감이나 희열을 느끼면서 열정이 생겼죠. 스스로 재미를 느끼니까 좋게 봐주시는 분들도 생겼어요. 새로운 캐릭터와 연기에 대한 고민은 당연하고, 재미가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향후 블랙코미디와 액션 등에도 도전하고 싶다고 했다. 운동을 좋아한다는 그는 “요즘엔 골프를 즐긴다며, 복싱과 아크로바틱 등 다양한 운동을 했었다”고 밝혔다. “관절이 더 안 좋아지기 전에 액션을 해보고 싶어요. 극영화도 하고 싶고, 굉장한 건조하거나 조커처럼 외로운 역할도 공급하죠.”  
롤모델로는 배우 이병헌을 꼽았다. 그는 “좋은 선배님들이 많지만, 장르와 희극, 정극을 오가는 그 스펙트럼이 너무 존경스럽다. 항상 예전부터 무서운 선배님이라고 생각했다. 다음에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기대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차기작으로는 드라마 ‘블랙의 신부’를 통해 배우 김희선과 호흡을 맞춘다. 이현욱은 “사실 제가 더 기대하고 있다”고 환하게 웃으며 “당대 최고의 톱스타 선배님과 하게 돼 기뻐 많이 되고 설렌다. 걱정도 되는 것,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다. 불거리가 많은 작품이니 기대해달라”고 당부했다.

## 김홍국, 30일 신곡 ‘살아봅시다’ 공개



김홍국은 오는 30일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신곡 ‘살아봅시다’를 무료 공개한다.

음원 사이트 무료 공개

김홍국 작사, 윤태규 작곡의 이 곡은 아내에게 바치는 헌정곡이다. 가사를 통해 김홍국은 “사랑한다는 그 흔한 말조차 못해 주고 살아 온 세월 참 아아 한다고 기다려 달라고 이래 저래 세월만 갔구려”라며 아내에 대한 미안한 속내를 털어놓는다.

이후 “이제 다시는 아프게 앓겠소. 당신 하나 믿고 살겠소. 당신은 내 사랑 나 당신 뿐이요. 우리 한 번 제대로 살아 봅시다”고 진심어린 다짐을 전한다.

김홍국은 “우리 딸(김주현)이 앨범 재킷 사진을 직접 촬영해 줬고, ‘테스형’ 편곡자 김기표 형님이 도움을 주셨다”며 감사함을 표했다.

## 영화 ‘7번방의 선물’ 스페인서 리메이크 된다

배우 류승룡 역 마리오 카사스가 맡을 예정

2013년 개봉해 1200만 관객을 불러 모은 영화 ‘7번방의 선물’이 스페인에서 리메이크 된다. 미디어그룹 뉴(NEW)는 “최근 스페인 제작사 락앤러즈(Rock and Ruz)와 리메이크 관련 계약을 맺었다”고 12일 밝혔다.

락앤러즈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블랙미러’ 프로듀서인 미겔 루즈(Miguel Ruz)와 프로덕션 코디네이터 출신 조르디 로카(Jordi Roca)가 설립한 신생 제작사다.

원작에서 배우 류승룡이 맡은 ‘용구’ 역할은 올해 스페인 IP(Intellectual Property·지식재산권)를 찾는 니즈가 늘고 있다. 앞으로 NEW의 포트폴리

예정이다. ‘7번방의 선물’은 6살 지능을 가진 아빠 용구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딸 예승이가 감옥에 몰래 들어와 함께 살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이번에 NEW와 함께 리메이크 관련 계약을 함께한 글로벌판권유통사업 계열사 콘텐츠파다는 “그간 NEW와 콘텐츠파다가 돈독한 신뢰를 바탕으로 유지해 온 글로벌 미디어 기업과 활발한 교류가 이어지고 있다”며 “최근 리메이크작이 현지에서 흥행에 성공하며 새로운 IP(Intellectual Property·지식재산권)를 찾는 니즈가 늘고 있다. 앞으로 NEW의 포트폴리



오를 활용해 다양한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했다. 뉴시스

## 가수 강타, 내일 리메이크 싱글 발매

가수 강타가 ‘자유롭게 날 수 있도록 2021’(Free To Fly 2021)을 공개한다. 12일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강타는 오는 14일 오후 6시 주요 음악 사이트를 통해 리메이크 싱글 ‘자유롭게 날 수 있도록 2021’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곡은 지난 1997년 발표된 H.O.T. 정규 2집 ‘Wolf And Sheep’(울프 앤 쉽)의 수록곡 ‘자유롭게 날 수 있도록’을 올해 버전으로 리메이크한 곡이다. 원곡자인 유명인의 프로듀싱으로 한층 풍부한 사운드와 강타의 감미로운 보컬이 잘 어우러져 곡의 매력을 한층 더한다는 계획이다. 뮤직비디오에는 강타와 더불어 NCT 성찬, 에스파 윈터가 특별 출연한다.



## 배우 김동준, 육군 현역 입대

그를 ‘제국의 아이들’ 출신 배우 김동준이 12일 육군 현역으로 국방의 의무를 시작한다.

앞서 김동준은 지난달 23일 네이버 브이라이브를 통해 “입대를 하게 됐다. 늦게 가는 거라 라이브를 통해 여러분께 먼저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조금 일찍 알게 된 것 같다”고 입대 소식을 알렸다. 이어 그는 “마음은 편찮다. 대한민국

남자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여러분께 좋은 모습, 성숙해진 모습, 의젓해진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다. 걱정하지 마시고 잘 다녀오도록 하겠다”며 군 입대를 앞둔 심경을 전했다. 김동준은 2010년 제국의 아이들 멤버로 데뷔, 이후 드라마 ‘동네번호사조들호’, ‘보좌관’, ‘경우의 수’, 영화 ‘간이역’, 예능 ‘맛남의 광장’, ‘정글의 법칙’ 등 다방면에서 활약해 왔다.

## ‘인질’ 황정민, 밋줄로 결박당한 채 팽팽한 기싸움

리얼리티 액션스릴러 영화

영화 ‘인질’이 새 스틸을 전격 공개했다. ‘인질’은 어느 날 새벽, 증거도 목격자도 없이 납치된 배우 ‘황정민’을 그린 리얼리티 액션스릴러 영화다.

‘공작’,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등 주로 작품 속에서 누군가를 추격하는 역할을 맡으며 강함을 뽐냈던 황정민이 ‘인질’에서 정체불명 인질범들에게 사로잡힌 ‘인질’을 연기했다는 것만으로 예비 관객들 사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스틸은 황정민이 인질범들에게 잡힌 무력한 모습과 함께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눈길을 사로잡는다. 황정민은 온몸이 밋줄로 결박당한 채 묶여있지만 반항적인 눈빛만



으로 인질범들과의 팽팽한 기싸움을 펼친다. 또한 온몸에 흠을 문 채 산속을 구른 것만 같은 그의 모습까지 포착되어, 과연 인질범들의 눈을 피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영화 ‘인질’은 오는 8월 극장에서 개봉 예정이다. 뉴시스

## 고건한, 새 드라마

배우 김남길과 호흡

배우 고건한이 SBS 새 드라마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출연을 확정했다.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은 동명의 논픽션 ‘프로’를 원작으로 연쇄살인범들의 마음을 읽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국내 최초 프로파일러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다.

고건한은 극중 송하영 역을 맡은 배우 김남길과 호흡을 맞추며 임팩트 있는 연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고건한은 “의미 있는 작품에 출연하게 되어 기쁘다.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고 출연 소감을 전했다. 고건한은 현재 인기리에 방영 중인 KBS 주말드라마 ‘오케이 광자매’에서 변사체 역을 맡아 감칠맛 나는 연기를 선보이고 있다.